

열심히 살아야 하는 이유

(끝없는 도전과 극복)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언제부터 생겨났으며 인간은 언제부터 이 땅에 살고 있었을까? 그것에 관해 현재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한가지의 이론을 보면 다음과 같다.

아주 오래 전 뻑뻑하게 모여 있던 별들은 지금으로부터 150-200억 년 전에 빅뱅(Big Bang)이라고 이름 지어진 대 폭발로 인해 팽창을 시작했다.

그 후 먼지와 가스 구름만으로 가득 차 있던 공간이 압축되어 아주 뜨거운 별 태양이 생겨났으니 그 때가 지금으로부터 약 50억 년 전이다. 그 태양이 생기는 핵융합의 과정에서 결다리로 생겨난 것이 우리 지구이며, 물렁하고 뜨거웠던 지구가 딱딱하게 식고 단세포 생물이 생기기 시작해서 그 유명한 공룡시대 쥐라기를 거쳐 간 것이 1억5천만 년 전 일이다.

그 후 인간과 가까운 친척 포유류 긴팔원숭이의 출현은 지금부터 무려 천만 년 전의 일이고, 마침내 ‘사람처럼 생긴 사람’이라는 호모 사피엔스 사피엔스가 나타나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단단한 바위에 그림을 휘갈겼다는 것이 3만5천 년 전이다.

그런가 하면 중국과 중앙아메리카에서 쌀과 옥수수를 길러 먹었던 것이 7천 년 전의 일이고, 우리 단군 할아버지의 후예가 한반도에 고조선을 건국한 일이 지금부터 약 4천 년 전의 일이다. 거시적(巨視的)으로 볼 때 우리 인간이 행복하게 백수를 누리고 산다고 할지라도 그 인생길의 발자취는 길고 긴 역사의 노정(路程)에 어디 점 하나도 찍을 형편이 안 되는 것 같다.

그런데 인간은 환경 변화에 적응하지 못 해서 결국 멸종했다는 거대한 동물 공룡보다는 월등한 존재인 것은 확실하다. 인간들은 자연 환경에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 자연의 역학을 변화시키기도 하고 고도의 과학 문명을 이루어 삶의 질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 이니까. 게다가 여기 흥미로운 한 가지의 사실이 있으니, 인간들은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들이 무서운 대상에게 보이는 회피 반응과는 달리 ‘가장 두려워하는 어떤 것’에 집요하게 집착하는 경향이 관찰된다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어떤 정신 분석가는 어린이들이 병원놀이를 하며 인형에게 주사를 놓는 것은 주사에 대한 공포심을 없애려고 하는 무의식적인 동기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고공 낙하라든가 가파른 암벽 타기 같은 아주 위험한 스포츠에 몰입하는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대상

에 대해 끝없는 도전과 극복을 추구하는 인간 심리의 특성 때문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의 사회적 변화에 대한 우리들의 반응 양식은 과거에 인류가 자연을 극복하고 가장 뛰어난 영장류로서 자리 매김을 했던 것과는 사뭇 다르다는 느낌을 준다. 요즈음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의 적응 방식은 대체로 부정(否定), 외면하기, 방치하기 또는 포기하기 등 나약하기 이를 데 없다.

과거에 우리의 조상들은 죽을힘을 다 해서 자연재해를 피해 내고 그것을 극복해 내기 위해 온갖 지혜를 다 짜내어 정말 침팬지와는 다른 인간의 속성을 이루어 냈다. 그러나 지금 우리의 모습은 노력하지도 않고 고통을 참아 내지도 않으며 뜻대로 되지 않으면 흠치기, 빼앗기, 도망치기, 감추기 등 침팬지도 다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 한다.

조금 더 나은(?) 점은 이것저것 해보고 안 되면 자결(自決)로 모든 문제를 덮어 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멀리서 보면 표도 안 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더라도 사실은 열심히 살아야 할 의무가 있다. 이웃과 자식들, 멀리는 미래의 후손들이 이 시대 상황을 살다 간 사람들을 나름대로 평가할 것이기 때문이다.